

“전남 생태계는 미래 기후 살펴볼 수 있는 스케치북”

전남도, 두바이 COP28서 ‘연안지역 탄소중립 전략’ 국제포럼 2028년 ‘COP33’ 유치 후보지 여수 중심 남해안 남중권 소개

“전남도는 지난 2012년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해양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오는 2026년에는 ‘섬’을 주제로 하는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8년 COP33을 여수를 비롯,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해 ‘탄소중립 실현’을 주제로 해양엑스포와 섬박람회의 유산을 계승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전남도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 기간, 국제포럼을 열고 기후위기로 인한 전 지구적 문제 해법을 모색할 COP33 유치 후보지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포럼장 안팎에서는 참가국들이 COP33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분석하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 방향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적절하게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지난 1일(현지시간) 오전 두바이에서 열린 COP28 기간 중 세계지방정부협의회인 이클레이(ICLEI)관에서 ‘연안지역의 탄소중립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특히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COP 33 유치 명분부터 왜 지금 유치해야 하는 지에 대한 당위성, 유치 이후 전략적 접근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2000개가 넘는 전남 섬과 순천만, 람사르 습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연간 21만 t의 탄소를 흡수하는 갯벌 등 전남의 생태계는 탄소 중립을 실현함으로써 변화하는 우리의 미래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기후 변화의 스케치북”이라며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COP 유치 후보지 전남과 여수를 중심으로 하는 남해안 남중권을 소개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바다숲’ 조성, 대한민국 최초 ‘갯벌 식생복원사업’, ‘국가해양생태공원’ 조

성 등의 노력도 설명했다.

전남도는 오는 2028년 열리는 COP33을 계기로 2년 뒤인 2030년에는 탄소 중립 100%의 전 단계로 3500만 t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계획도 밝혔다.

안상현 전남도 환경산업국장(왼)은 이날 ‘전남 연안지역의 특성과 탄소중립 잠재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온실가스 2853만 t 감축효과가 있는 30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며 여기에서 발생한 친환경 전력을 활용,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하는 계획,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50곳) 조성, 그린수소 에너지저장 계획 등 탄소중립 실현의 실질적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장 내 이클레이관에서 열린 전남도 주관 ‘연안지역의 탄소중립 전략’ 국제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중심인 바다와 연안을 보존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OP 28을 계기로 기존 탄소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탄소 중립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전남의 의지를 강조했다라는 분석이다.

안 국장은 이어 “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와 연안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할 열쇠”라며 “2028년에 열리는 COP33을 유치해 세계인과 ‘연안생태계 중심의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주제로 논의의 장을 펼치고 싶다”고 유치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김찬우 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의 ‘탄소중립을 향한 전남도’ 주제 발표 외에 이클레이 박연희 소장을 좌장으로 권봉오 군산대 교수, 해의 지방정부 단체장 등이 참여한 ‘연안지역의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 등에 관한 토론도 펼쳐졌다.

/두바이=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알립니다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세상을 가치있게!’

광주일보사는 한국신민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연말연시를 맞아 희망 2024 나눔캠페인 성금 모금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으로 모금된 성금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나눔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이어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금 접수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아래 성금 모금 계좌로 직접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문사에서는 성금을 받지 않습니다.)

- 모금기간 : 2023년 12월 4일(월) ~ 2024년 1월 31일(수)
- 계좌번호 : 광주은행 053-107-999990
KB국민은행 551-01-1289-075
NH농협은행 609-01-088271
(예금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광주광역시지회(062-222-3566))
- ARS번호 : 060-700-1212 (한 통화 3천원)
- 문자기부 : #9004 (문자 1통 2천원)
- 문 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www.chest.or.kr) 기부상담 전화 080-890-1212

2023년 12월 4일

光州日報社·한국신민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전남 노인 일자리 10만명 모집한다

광주 4~15일, 전남 20일까지 접수...월 29만~76만원 지급

광주와 전남도가 2024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3만2370명, 6만4000명을 각각 모집한다. 전남도는 지난해보다 7000명이 늘어난 수치다.

광주시는 4일부터 15일까지, 전남도는 20일까지 ‘2024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광주시는 2024년 노인일자리사업에 1344억원을 투입해 5개 자치구와 5개 시니어클럽 등 65개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3만237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분야별 모집인원은 노노케어 등 공익활동형 사업 2만4054명, 보육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사업 4652명, 매달운용 등 시장형 사업 2495명, 민간업체 취업알선형 사업 1169명이다.

전남도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사업비는 올해보다 548억원 증가한 2592억원이 투입된다.

광주와 전남 모두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이며,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시장형과 취업알선형은 6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다.

공익활동 참여자는 월 30시간(1일 3시간 이내) 활동하고 활동비 29만원월을 지급받게 되며,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근무하고 76만1000원의 임금을 받는다.

시장형·취업알선형 사업 참여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가 별도 책정된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초수급자(생계급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를 비롯해 정부부처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등에 2개 이상 중복 참여하면 참여가 제한된다.

순수치 광주시 고령사회정책과장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나주 배·고흥 유자...두바이는 지금 ‘전남앳이중’

한국식품 안테나숍서 시식·판촉행사...김·파프리카·두부스낵 등 인기

나주 배, 고흥 유자를 비롯해 김, 파프리카, 두부스낵 등 전남의 대표 농수산물들이 아랍 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두바이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에 참가하고 있는 전남도가 COP33 유치를 나서면서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한국식품 수출 안테나숍(K-Fresh Zone)에서 전남식품 판촉행사를 개최해 현지 주민들과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 문화권인 현지 수요를 감안해 전남의 대표 농수산물 중 배, 유자, 김, 김치, 파프리카, 고구마, 배추스, 두부스낵 등 총 8개 품목을 선정해 시

식 및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파프리카의 경우 한국 최초로 두바이에 시험 수출됐다.

매장을 방문해 풍부한 과즙과 아삭한 식감의 나주배를 시식한 현지인들은 다른 현지 과일보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갖고 구매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과 파프리카, 유자주스, 두부스낵 등도 시식 행사를 통해 현지인의 뜨거운 반응을 확인했다.

이슬람교 신자가 76%에 달하는 아랍 에미리트는 육류의 경우 이슬람 율법으로 허용된 음식만을 섭취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식물성 식품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농산물과 해조류 위주로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한국식품 수출 안테나숍은 두바이 현지에서 각종 수입 농수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팜프레시마켓에 있는 곳으로, 지난 7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부산의 뉴립트레이딩이 함께 개설했다. 한국식품의 중동지역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혁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두바이지사는 “코로나19 이후 한국영화와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지만 현지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며 “한국식품 수출 안테나숍이 두바이를 넘어 아랍권 지역에 수출을 확대하는 전초기지로서 전남의 대표 특산물 배와 김, 김치, 유자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배는 두바이 현지 마켓을 대상으로 한 샘플 테스트에서 반응이 좋아 다수의 현지 식품마켓 입점이 결정돼 최근 수출 선적을 했다.

/두바이=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개발부지 매매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시흥대로변

매매금액 : 280억
대지면적 : 1,379㎡(417평)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 서울과 경기 서남부권을 잇는 시흥대로 광대로변에 위치한 자산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신안산선 개통 예정으로 더블역세권 위치
- 매도자 명도조건이며, 제소전화해 완료
- 추천용도 : 오피스텔 및 근생 개발, 자동차전시장 및 판매장

대표 번호 02-554-9685 (주)알스퀘어에셋부동산중개 | 대표 영업 오후 11680-2019-0048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1 3층 (역삼동, 아남타워)

조선이공대학교 2024학년도 학기 전임교원 초빙 재공고

1. 초빙분야
2. 지원자격
3. 서류접수
4. 채용서류
5. 유의사항
6. 임용조건
7. 진행일정
8. 문의처